

(주)팜스코

## 우유 소비 촉진, 팜스코가 앞장 서겠습니다!

### - (주)팜스코 전(全)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우유 급식 시행



최근 잉여우유 증가에 따른 쿼터 축소 등으로 농가 소득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주) 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가 3개 공장 사업장의 우유급식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주)팜스코와 매일유업은 지난 9월 24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팜스코-매일유업 원유 소비 확대 협약식” 을 갖고, 팜스코 전(全)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우유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주 3회 중부공장,서부공장, 음성공장 3개 사업장에서 우유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200ml 흰우유 4,000개(약 8톤) 규모이다.

(주)팜스코 권천년 사료사업총괄 본부장은 “낙농가들이 없으면, 사료 회사도 없다.” 면서 “팜스코 임직원들의 우유급식 실시가 침체되어 있는 우유 소비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 역설하였다.

한편, (주)팜스코는 우유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추가 논의 중에 있다.

##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축산의 우수성 널리 알려 CJ제일제당 생물자원 사업부문, 인도네시아 축산시장을 ‘쏘다’

CJ제일제당 생물자원 사업부문(이하 CJ, 대표 유종하)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축산의 세계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자카르트에서 열린 ‘2015 ILDEX 인도네시아’ 참석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독 CJ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대한민국은 잘 몰라도 CJ는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상당수였기에 현지에서 CJ 인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CJ는 인니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인니 사료시장에서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두 그룹이 독주하는 인니 사료시장에서 해외 기업의 법인이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인니 축산관계자들의 말이다.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현하여 이슬람 교도의 두터운 보수집단인 인니 축산의 벽을 뚫은 CJ는 1996년 사업개시 이후 사료법인 4곳(자바 섬 2곳, 수마트라 섬 2곳)와 축산법인 1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2,988명(외주인원 포함)이 사료판매량 백만 톤에 매출액 약 6,700억 원(2014년 기준)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사료·축산이 합산하여 영업이익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은 괄목할만한 사항이다.

한편 CJ는 인니에서 목표를 현재 사료판매량의 2배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는 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열화 사업 역시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장하여 확고한 시장 3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과 인니에서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새우사료시장에서 품질로 승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CJ의 향후 계획이다. ☺